

▶ 달러/원 주간 전망

• 美 고용지표 관심에도 현실화된 무역전쟁 파장 살피기

서울, 2월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에 따른 파장을 살피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월간 환율 범위는 1445-1470원이다.

연초 형성됐던 위험선호 성향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등장과 트럼프 관세정책 시행 등에 열어지고 있다. 무거운 포지션 조정에 하락했던 달러지수는 수월하게 108선 중반대를 회복했다. 한편, 지난 주말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엔 캐리 청산이 몰렸던 작년 8월 초 이후 가장 많은 1조원대 매물을 쏟아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두고 '혹시나' 했던 기대는 결국 '역시나'의 결말을 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기로 1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이와 동시에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무역전쟁 개시와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는 부정적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반도체, 제약, 철강, 구리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말했다.

강달러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 속 달러/원 환율은 지난 달 다소 낮아진 거래 레인지가 1450원대를 하단으로 하는 이전 레인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혀 예상치 않은 중국 저비용 인공지능 모델 등장에 따른 기술주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그간 낙관적인 투자심리를 강타한 가운데 이번 주중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은 높다. 알파벳, ARM, 퀄컴, 아마존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경로 전망을 흐릿하게 한 가운데 이번 주중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챙겨봐야할 변수다.

그럼에도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시장 재료는 주 후반에 나올 미국 고용지표다. 캘리포니아 산불 여파에 고용 둔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매번 시장 예상을 벗어난 고용 결과에 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학습효과를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세, 재정 등 정책 시행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터라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해석과 전망으로 개별적인 자산시장이 기민하게 움직일 유인은 낮아져있다.

불안한 시장심리 가운데 이머징 자산과 통화들의 경우 약세 편향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원화 변동폭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달 한국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0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이를 두고 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상황에서 2월 한국 수출을 마냥 낙관할 수는 없게됐다.

대외 불확실성 뿐 아니라 역내 수급 여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될지도 관건이다.

이번 주 발표되는 국내 경제지표로는 12월 산업활동동향, 1월 소비자물가지수, 1월말 외환보유액, 12월 국제수지(잠정) 등이다.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2월3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은 일자리 데이터를 발표하고, 시장은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인공지능(AI) 환경을 가늠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금리 결정을 내리고, 유럽 주요 은행들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트럼프 관세

채권 투자자와 외환 트레이더부터 연방준비제도 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세가 얼마나 가혹할지 궁금해한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이 국경을 넘지 않을 때까지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연간 미국으로 향하는 총 1조 달러 규모의 화물이 포함된다.

캐나다는 펜타닐 단속을 시작하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12월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기록했다.

더 흥미로운 사례는 10% 관세가 부과된 중국이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우호적인' 전화 통화 이후 중국에 관세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음에도 관세를 강행했다.

○ 미국 고용지표

2월7일에 발표되는 월간 미국 일자리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노동 시장을 얼마나 극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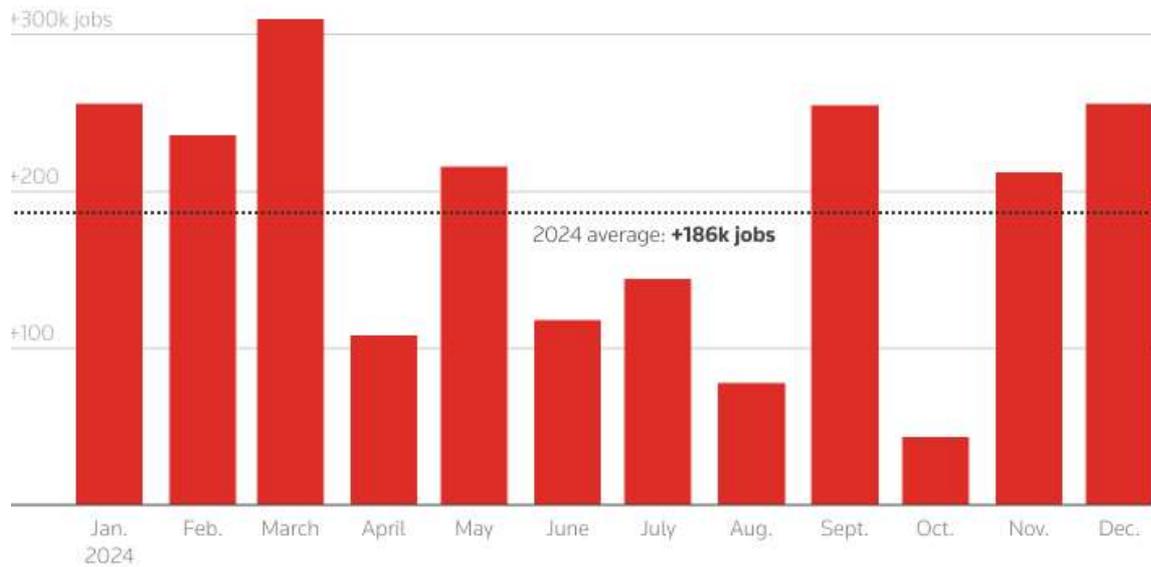
12월의 고용지표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국제 금리를 상승시켰다. 고무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켰지만,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2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퇴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민 단속과 연방 인력 감축 계획을 포함한 트럼프의 노동 시장 의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큰 이슈다.

Eyes on first US jobs report in 2025 after Fed paused rate cuts

The U.S. added 256,000 jobs in December, the strongest reading in three months.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30, 2025

⊙ 기술 부문 변화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AI 투자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추측해 왔으며, 이제 새로운 관점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바로 최첨단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컴퓨팅 성과와 투자에 대한 가정을 뒤집은 중국 AI 돌풍의 주역인 딥시크의 등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급락시켜 시장 가치에 기록적인 손실을 입혔다.

딥시크는 또한 미국 기술의 광범위한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으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상위 7개 기술 주식의 경쟁 우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요일에 발표될 매그니피센트 세븐 일원인 알파벳(GOOGL.O)과 목요일에 발표될 아마존(AMZN.O)의 이익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은 최근의 AI 시장 변동성이 미래의 도전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 재투자할 기회인지 판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유럽 은행 실적

이번 주에는 프랑스 은행인 BNP파리바(BNPP.PA), 소시에테 제네랄(SOGN.PA), 크레디트 아그리콜(CAGA.PA), 스위스 UBS(UBSG.S), 스페인 산탄데르(SAN.MC) 등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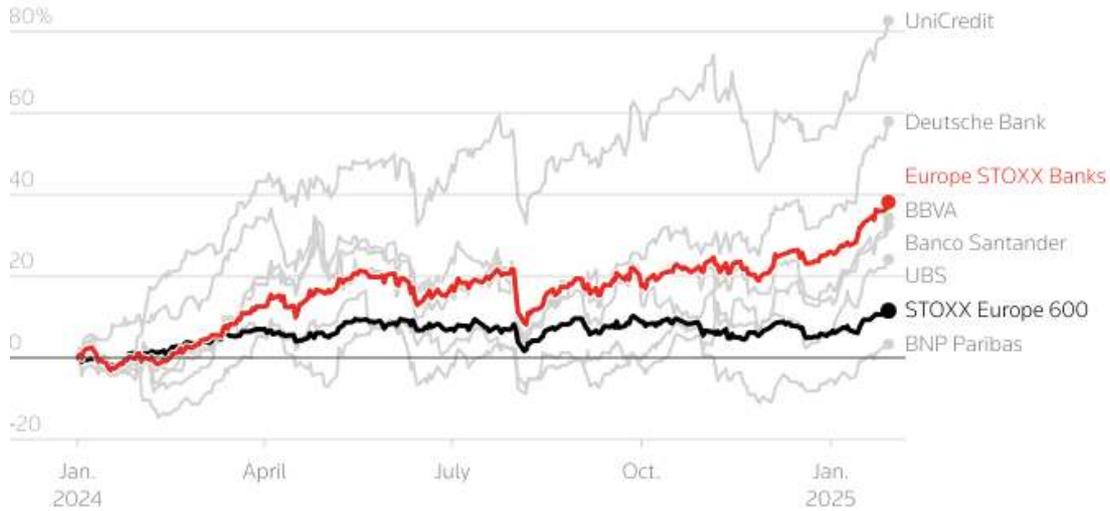
대부분의 은행은 투자 은행 부문 수익 급증에 힘입어 2년간의 주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

투자자들은 최근의 폭발적인 거래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는 힌트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는 남아 있다. 금리 하락은 은행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며, 유럽 경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European banks outperform

Boosted by higher earnings, the banking stock index outpaced gains of the broader market index.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30, 2025 | By Vineet Sachdev

○ 영란은행 금리 결정

영란은행은 목요일에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를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러 고용 지표에서 노동 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연말 쇼핑 기간에 소비자 지출이 예기치 않게 위축되는 등 영국 경제지표가 약화되고 있다. 2024년 3분기에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영란은행은 마지막 분기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몇몇 은행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의 성장 활성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국 경제가 1% 성장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달 초 채권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정부의 10년 만기 차입 비용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문제도 있다. 이후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4.5%를 상회하며 G10 경제 대국인 뉴질랜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기술주 매도 충격 이후 발표되는 美 고용 지표와 빅테크 기업실적

뉴욕, 2월3일 (로이터) - 지난 주 급격한 기술주 매도세에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이미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신호가 고용 데이터를 통해 나타날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이번 주에 발표될 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높은 차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수요일 경제 호조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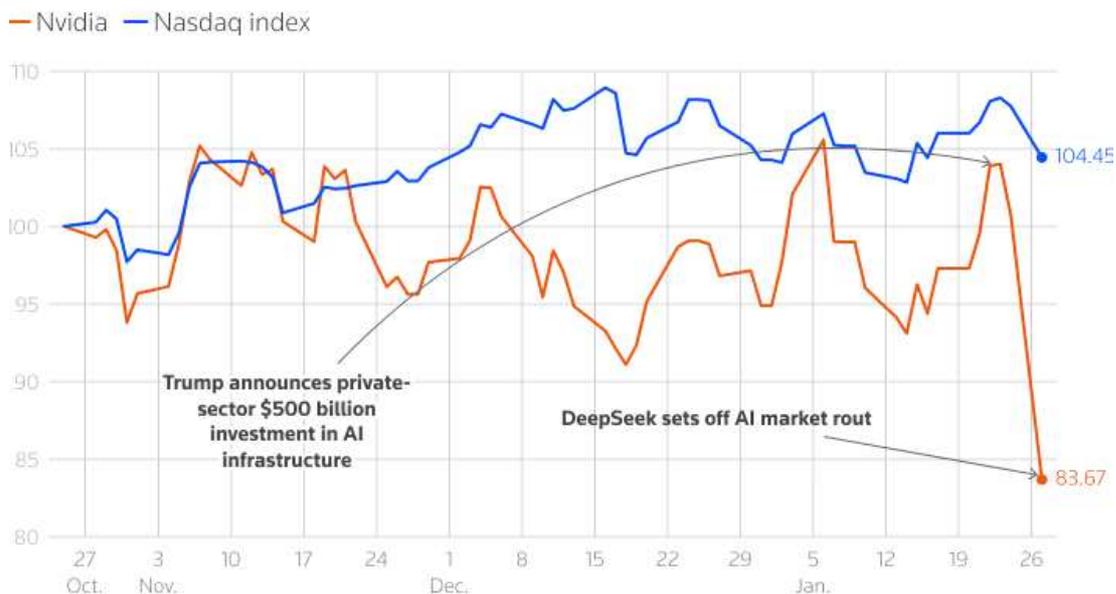
시장은 트럼프의 무역 및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경제 과열의 힌트를 경계할 것이다. 1월 초 12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천천히 내릴 것이라는 베팅이 강화되면서 주식이 폭락한 바 있다.

누빈자산운용의 채권 전략 책임자 토니 로드리게스는 "고용 보고서는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끌지 않는 견고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초 주가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예산 인공지능 모델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 주가의 고평가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투매로 인해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약화됐다.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해켓은 메모에서 "투자자들은 AI, 트럼프 행정부 정책, FOMC 회의, 실적 등 서로 다른 데이터의 물결로 인해 혼란스러워했다"라면서 "대형 기술 분야의 변동은 해당 분야의 위험-보상 균형이 확대되고 있고, 매도세에 취약하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Nvidia falls sharply as DeepSeek triggers an AI market downturn



Note: Share prices rebased; Oct 25, 2024 = 100
Source: LSEG Datastream | Aditya Srivastav | Jan. 28, 2025

Reuters Breakingviews

이번 주에는 알파벳GOOGL.O과 아마존AMZN.O의 분기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메가캡 기술주의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뒤따를 예정이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 파트너에 대한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 위협 등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래퍼 탕글러 인베스트먼트의 채권 책임자 바이런 앤더슨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2월3일 (월)

-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8:00)
-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한국형 대규모 준구조 거시경제모형(BOK-LOOK) 개발 결과 (12:00)

2월4일 (화)

- ⊙ 한국은행: 2025년 제1차(1.16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2월5일 (수)

- ⊙ 한국은행: 2025년 1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통계청: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2월6일 (목)

- ⊙ 한국은행: 2024년 12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금융상황점검TF (10:00)
- ⊙ 한국은행: 총재 「BIS CGFS(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PMI(지급·시장인프라 위원회) 워크숍」 참석 (6일~8일)
- ⊙ 한국은행: 신성환 위원 대만·싱가포르 출장 (6일~11일)

2월7일 (금)

- ⊙ 특이 일정 없음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2월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2월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1월		48.8
2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월	50.5	50.5
2월3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1월	46.1	46.1
2월3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1월	2.4%	2.4%
2월3일	19:00	유로존	CPI NSA	1월		127.07
2월3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1월		50.1
2월4-1 1일	00:00	미국	자동차판매	1월		3.030M
2월4일	00:00	미국	ISM 제조업 PMI	1월		49.2
2월5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2월		-2.2%
2월5일	00:00	미국	JOLTS 구인이직보고서	12월		8.098M
2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월		52.2
2월5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1월	51.4	51.4
2월5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12월	0.4%	1.6%
2월5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월 31일 주간		220.0
2월5일	22:15	미국	ADP 전미 고용보고서	1월	150k	122k
2월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월		52.8
2월6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월	54.2	54.0
2월6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2월	0.0%	0.1%
2월6일	21: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1월		38.792k
2월6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 27일 주간	215k	207k
2월7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2월	0.2%	-0.4%
2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월		1,230.7B
2월7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월	170k	256k
2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월	3.200T	3.202T
2월8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월	70.9	71.1
2월8일	05:00	미국	소비자 신용	12월	10.50B	-7.49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3일 (월)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로터리클럽 주최 행사에서 연설 (4일 오전 2시30분)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주최 강연 행사 환영사 (4일 오전 7시30분)
- ⊙ 휴장국가: 중국 등

2월4일 (화)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전국주택위기TF 회의서 연설 (5일 오전 1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커먼웰스클럽 토론 참석 (5일 오전 4시)
- ⊙ 휴장국가: 중국 등

2월5일 (수)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컨퍼런스보드 주최 컨퍼런스 참석 (오후 11시)
- ⊙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터슨연구소에서 연설 (오후 11시)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오토모티브 인사이트 심포지엄서 연설 (6일 오전 3시)

2월6일 (목)

- ⊙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및 기자회견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및 회의록 공개 (오후 9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오클랜드 로터리클럽에서 연설 (7일 오전 5시30분)
- ⊙ 휴장국가: 뉴질랜드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연준의 '제약적' 통화정책과 금융 여건

이 칼럼은 제이미 맥기버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1월31일 (로이터) - 미국 금리 사이클은 주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얼마나 제한적 또는 완화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혼란스럽다.

수요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후 제롬 파월 의장은 100bp 인하 이후에도 정책이 여전히 "의미 있게" 제약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융 여건이 "아마 여전히 다소 완화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인 걸까?

파월 의장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아마도 "혼재된 상태"일 것이다.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강조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이는 연준에 숨통을 틔워주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이민 아젠다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좋다.

파월 의장의 말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관망' 기간은 금융시장에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충되는 신호는 잠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책은 여전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4.25~4.50%로, 연준의 장기 정책금리 추정치 중간값인 3.0%를 훨씬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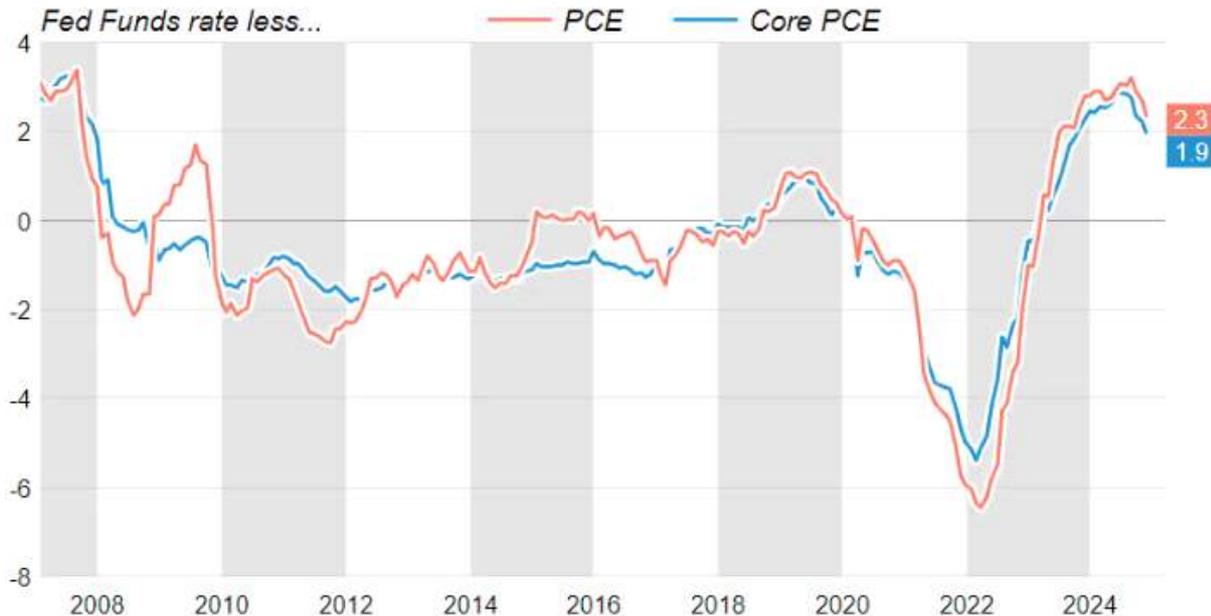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정책금리도 일부 지표에 따르면 2%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역사적 수준에 비해 높으며,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할 때의 실질 금리인 'R-스타(R-Star)'에 대한 연준 추정치 0.7%-1.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 수석 전략가는 2022년 이후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2조 달러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3~4년 만에 가장 제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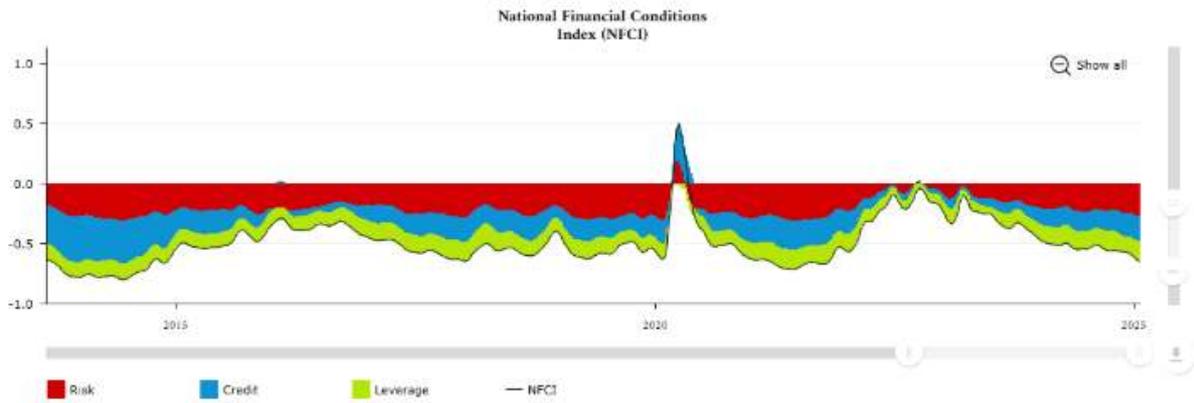
그는 화요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해냈다. 파월이 해냈다"라고 말했다.

Real Fed Funds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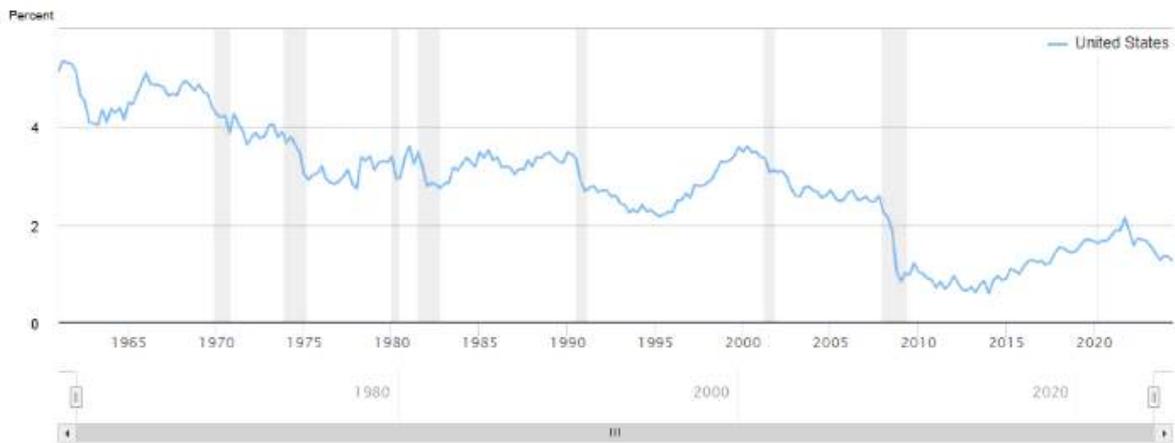
Source: LSEG Datastream, data to Jan 25

R. Beales, V. Flasseur | @Breakingviews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or R-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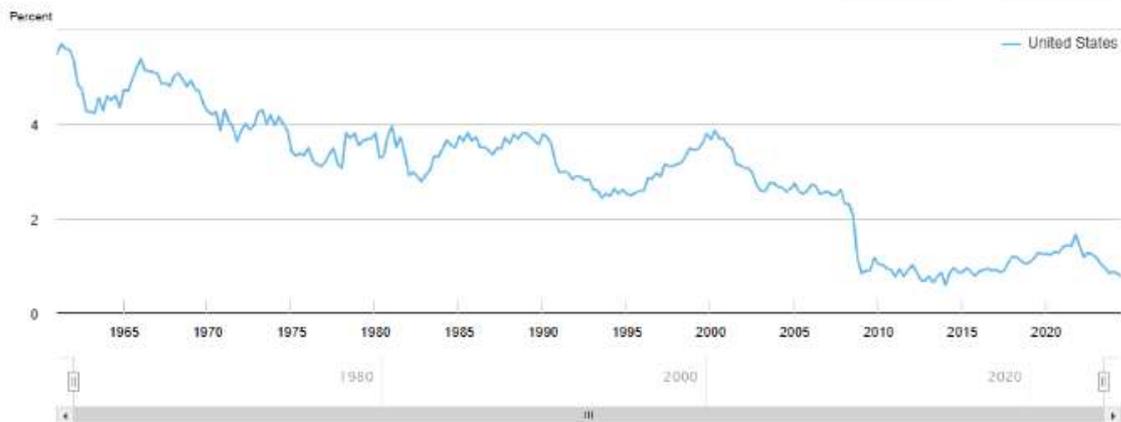
From To



Select Options (Selections apply to all charts) United States Canada Euro Area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or R-Star

From To



◆ 여전히 너무 완화적

반면 인플레이션 매파는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한 정책을 더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졌지만 연간 인플레이션은 거의 4년 동안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내수 수요와 견고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경제 성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한다면 정책을 충분히 제약할 수 없다. 몇 가지 금융 여건 척도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일리가 있다.

월가는 이번 주 인공지능(AI)발 불안에도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고 있으며, 주식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2007년 이후 가장 타이트하며 역대 최고로 타이트한 수준에 근접했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키거나 시장 유동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실제로 시카고 연은의 국가 금융 여건 지수(NFCI)는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10여년 만의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시카고 연은은 NFCI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105개 중 102개가 평균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평균적으로 올해 100bp, 내년에 50bp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단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BNP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이민 정책 강화, 완화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 연준이 2026년 중반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스스로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이들은 수요일에 "우리는 통화 정책이 약간 제약적일 뿐이며, 관세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인하가 가능하고 연착륙이 도달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인상이 가능한 양방향의 대체로 균형 잡힌 리스크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향후 경로에 대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달 동안 시장이 새로운 경제지표나 연준의 미묘한 발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 몇 달 동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